

‘방학 중 무상급식 철회’ 후유증 지속… “교육감은 사과하라”

전교조 광주 “보름 만에 정책 바뀌어 학교만 혼란”
 “무상급식 기대했던 학부모 등 학교에 항의 전화”
 광주시의회 교문위, 이 교육감 출석 요구 ‘이례적’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방학 중 무상급식 정책’이 보름여 만에 철회됐지만 교육단체 등은 교육계 혼란을 야기했다며 책임자 문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이례적으로 이 교육감의 상임 위 출석을 요구했으며 교육단체 등은 피켓시위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진통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에 따르면 이 교육감이 취임과 동시에 예산 23억원, 유치원 126곳, 초등 150개교 1~2학년 돌봄학생 1만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려 했던 ‘여름 방학 기간 학교급식소를 통한 점심 무상제공 정책’을 최근 철회했다.

이 교육감은 코로나19 재유행, 식중독 우려, 급식 종사자 등과 합의 부족 등을 철회 배경으로 내세웠으며 유치원 10곳·초등학교 1곳 등 11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겠다고 방향을 바꿨다.

또 급식 시범학교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교조광주, 교사·교원노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뒤 겨울 방학부터 재추진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를 놓고 교육단체 등은 “방학 중 급식을 시행하겠다고 공문까지 발송하며 밀어붙였던 이 교육감이 수일 만에 정책을 철회해 학교 행정이 혼란에 빠졌다”며 책임자 문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방학 중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취임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아무일 없다는 듯이 철회했다”며 “보름만에 교육정책이 바뀌는 동안 일선 학교행정에는 급식 업체를 선정했다가 취소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 “무상급식을 기대했던 일부 학부모는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 따라 학교에 항의하는 등 소동도 빚어졌다”며 “이에 대한 비난도 교사와 급식종사자들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을 겪었는데 이 교육감은 사과 한마디 없이 겨울 방학 재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며 “책임자 문책과 이 교육감의 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피켓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이 겨울 방학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구성하는 협의체 또한 이 교육감의 태도에 따라 참석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9일 “광주시교육청이 방학 중 무상급식을 철회 추진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후 펼쳐진 광주시교육청 앞 피켓시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도 20일 임시회 3차 회의에 이 교육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문위는 무상급식 정책이 무산된 데 대한 이 교육감의 입장과 추진 방향에 대해 물을 예

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과 교육감은 의회 출석 시 본회의에 출석하는 것이 통례로, 상임위에서 임시회 기간 중 출석을 요청하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재환기자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코로나 딛고 빠른 회복세…정상화 질주

전국 대회 62% 개최…올해 270일 운영 목표 순항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정상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이 국내 대규모 공공체육시설로는 유일하게 설립 목적에 부합한 운영으로 수치 균

형을 맞추고 있다.

올해 전국 모터스포츠 대회의 62%를 개최하면서 270일 운영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국내 최대 스피드축제인 ‘전남 GT’를 비롯, 국내 유일 프로대회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등을 통한 관람객 유치, 자동차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은 세계 41개 국제공인 1등급 경주장(서킷) 중 하나로, 국내에선 유일하다. 추구장의 170배에 달하는 180만㎡, 총 길이 5.6km로 세계 8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긴 세계 정상급 시설이다.

월드컵경기장, 야구장 등 1만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국내 공공체육시설은 사후 활용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적자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자동차경주장은 국내 유일하게 설립목적에 부합한 자동차, 모터스포츠 관련 용도로 연간 34억여원의 수입을 올려 운영수지 균형을 맞추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60일 휴관하고 2021년에는 38일간 임대계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코로나19 사태 이전 평균 280일이던 경주장 운영일수는 241일까지 축소됐다.

여기에 12만~14만명이던 방문객도 4만~5만명으로 급감했다. 자구책으로 온라인 중계 등 비대면 콘텐츠를 확대했지만 대회 현장감을 전달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올 들어 일상회복 시대를 맞으면서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전의 96%인 총 270일 운영일수를 목표로 상반기 128일이나 가동됐다. 하반기에도 주말 임대가 이미 예약이 확정돼 주중 임대만 가능하다.

전국 모터스포츠 대회의 62%를 점유한 가운데, 상반기 8회 개최에 이어 하반기에는 16회 예정돼 있다.

가족단위 체험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오는 10월 개장 예정이다. 일부 시설은 이미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유행 확산 더 커지고 빨라진다 “8월중순 확진자 최대 28만명 예상”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2주 연속 ‘중간’ 단계로 평가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월2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주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다. 10~19세에서 가장 높은 증가비(2.4배)를 보였고,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와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유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세종이 된 BA.5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면역회피성이 높은 데다, 일반 국민들의 면역력이 감소하는 시기가 맞물렸다는 평가다.

향후 확진자는 최대 28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재의 확산 상황이 지속되면 8월 중순에서 8월 말 사이 정점에 도달하고, 발생 폭은 최대 28만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25th Muan Lotus Festival

2022 한국관광공사
안심관광지 선정

제 25회 무안 연꽃축제

연꽃의 향기! 백련의 사랑!
사랑이 이루어지는 회산백련지

2022. 07.21(목) ▶ 07.24(일)
무안군 회산백련지 일원

주최 무안군
주관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